

# 봉준호 “오스카 캠페인…열정으로 메꾼 게릴라전”

‘기생충’ 오스카상 주역들 기자회견

송강호 “최고 예술가들과 호흡하고 대화…내가 작아지는 느낌”  
이정은 “영화 잘 찍으면 할리우드 안 가도 다 알아봐 주더라”

“영화가 긴 생명을 가지고 1년 가까이 세계 이곳저곳을 다니다가 마침내 또 여기 다시 오게 돼서 기쁩니다.”  
봉준호 감독을 비롯해 ‘기생충’ 오스카상 주역들이 아카데미 시상식 이후 국내에서 처음으로 한자리에 모였다. 19일 오전 11시 웨스틴조선호텔에서 열린 공식 기자회견에서다.

이날 회견에는 봉 감독 이외에 송강호, 이선균, 조여정, 박소담, 이정은, 장혜진, 박명훈 등 배우들과 제작자인 곡신에 바른슨 E&A 대표, 한진원 작가, 이하준 미술감독, 양진모 편집 감독 등이 참석했다.

봉 감독은 이날 오스카 캠페인 뒷이야기를 들려줬다.

봉 감독은 “캠페인 당시 북미 배급사 내 온은 설립된 지 얼마 안 된 중소 배급사였고, 우리가 처한 상황은 마치 ‘게릴라전’ 같았다”고 했다.

이어 “거대 스튜디오나 넷플릭스 이런 회사에 비하면 훨씬 못 미치는 예산으로, 열정이 없었다. 그 말은 저와 강호 선배님이 코피를 흘릴 일들이 많았다는 의미다. 인터뷰만 600차례 이상, 관객과의 대화도 100회 이상 했었다”고 힘찬 여정을 떠올렸다.

봉 감독은 한 외신 인터뷰에서 아카데미 시상식을 ‘로컬’이라고 말한 게 아카데미를 도발하기 위해 계획한 것이었느냐는 질문이 나오자 “제가 처음 캠페인을 하는 와중에 무슨 도발적이나 하겠냐”며 웃었다.

봉 감독은 전작들과 달리 ‘기생충’이 세계적인 조명을 받은 이유에 대해 “이번 이야기는 동시대 이웃에서 볼 수 있을 법한

이야기인 데다, 뛰어난 앙상블의 배우들이 실감나게 표현한, 현실에 기반한 분위기의 영화여서 더 폭발력을 가지게 된 것이 아닐까 짐작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오늘 아침에 마틴 스코세이지 감독이 편지를 보내왔다”고 전한 뒤 “저로선 영광이었다. 마지막 문장에 ‘그동안 고생했을 테니 쉬어라. 다만 조금만 쉬어라. 나도 그렇고 다들 차가차 기다리니까 조금만 쉬고 다시 일하라’고 편지를 보내 주셨다. 감사하고 기쁘다”고 말했다.

봉 감독은 ‘기생충’ HBO 드라마 제작과 관련, “‘기생충’이 애초 가진 주제 의식과 동시대 빈부격차에 대한 이야기를 블랙코미디와 범죄 드라마 형식으로 더 깊게 파고들어갈 것 같다”고 귀띔했다.

봉 감독은 “HBO ‘체르노빌’처럼 5-6편으로 완성도 높은 밀도의 TV 시리즈를 만들고 싶다. 최근 캐스팅 기사로 틸다 스윈턴, 마크 러발로가 언급됐는데, 공식적인 사항은 아니다. 저랑 애덤 매케이 감독이 이야기를 나누고 있고, 방향과 구조에 대한 논의를 시작하는 단계다. 올해 5월 ‘실국열차’가 TV 시리즈로 방영되는데, 제작에 들어가 5년 만에 방송되는 거 보면 ‘기생충’도 시간이 걸릴 것 같다”고 내다봤다.

봉 감독은 CNN 기자가 ‘기생충’이 한국 사회 어두운 면을 묘사하는데도 한국 관객들이 열광하는 이유를 묻자 “자주 들었던 질문”이라며 담담하게 말을 이어갔다.

“제 영화는 우스꽝스럽고 코미디 적인 면도 있지만, 빈부격차의 현대사회가 적나라하게 드러나는 씁쓸하고 쓰라린 면도 있다. 그걸 1cm라도 피하고 싶은 마음은



19일 서울 웨스틴조선호텔에서 열린 ‘기생충’ 기자회견에서 봉준호 감독(오른쪽부터), 배우 송강호, 박소담, 이정은, 장혜진이 박수치고 있다.

없었다. 처음부터 엔딩에 이르기까지 그런 부분을 정면 돌파했다. 관객이 불편하고 싫어할까 봐 그런 두려움에 영화에 당의정을 입혀서 달콤한 장식으로 영화를 끌고 가고 싶진 않았다. 최대한 우리가 사는 시대에 대해 솔직하고 그러려고 했던 게, 대중적인 측면에서 위험해 보일 순 있어도 이 영화가 택할 유일한 길이라고 생각했다.”

봉 감독은 ‘기생충’ 흑백판을 내놓은 데 대해 “고전 영화나 클래식 영화에 대한 동경 소위 말하는 로망이 있어서 만들었다”면서 “흑백판을 통해 배우들의 미세한 표정이나 연기 디테일, 뉘앙스를 훨씬 더 많이 느낄 수 있다. 알록달록한 컬러가 사라지니까 배우들의 표정과 눈빛이 더 집중할 수 있을 것”이라고 관람 팁을 줬다.

봉 감독은 ‘기생충’ 수상 이후 지자체에서 그의 동상이나 생가 복원 작업 등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데 대해 “그런 이야기는 제가 죽은 후에 해주셨으면 좋겠다. 이 모든 것이 지나가리라 생각하면서 그런 기

사들은 넘겠다”며 웃었다.  
“‘기생충’을 통해 미국뿐만 아니라 전세계 관객들에게 뛰어난 한국 영화를 선보이고 돌아와서 기쁘다.”

‘기생충’ 오스카상 4관왕의 주역 중 한 명인 송강호는 환한 웃음을 지으며 이런 소감을 밝혔다.

송강호는 “지난 6개월간 최고 예술가들과 호흡하고 대화를 나누고, 작품을 함께 봤다. 내가 아니라 타인들이 얼마나 위대한지 알아가는 과정이었다. 저 자신이 작아지는 느낌이었다고, 그만큼 위대한 예술가를 통해 많은 것을 느꼈다”고 벅찬 감동을 전했다.

송강호는 ‘기생충’이 4관왕에 오를 때 소감을 묻자 “시상식장에서 봉준호 감독 바로 옆에 앉아있었는데, TV 화면을 보면 제가 굉장히 자제하는 모습을 볼 수 있다. 칸영화제 수상 때 제가 너무 과도하게 (축하를) 하는 바람에 감독님 갈비뼈에 실금이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이번에는 얼굴 위주로, 어떤 상은 빵을 때리고, 어떤 상

은 목덜미를 잡기도 했다”고 답해, 웃음을 끌었다.

다른 배우들도 수상 당시 감격 등을 들려줬다.

이선균은 “너무 벅했다. 4개 부문 상을 받고 보니까 아카데미가 큰 선을 넘은 것 같았다. 편견 없이 우리 영화를 좋아하고 응원해주신 아카데미 회원들에게 감사하다”고 말했다.

장혜진은 할리우드에서 출연 제의가 온다면 “오브 코스, 와이 나트~ 아이م 레디”(of course, why not? I'm ready)라고 얘기해주고 싶다”고 했다.

이정은은 “미국과 유럽에서도 젊은 층이 경제적인 문제를 겪고 있다. ‘기생충’은 동시대적 문제를 제기했고, 심도 있게 표현했다. 선과 악은 없는데 누군가는 누구한테 가해자가 되고 피해를 주고… 이런 관계가 우리 인간군상과 흡사해 놀라는 것 같고, 예상할 수 없는 스토리 덕분에 호응을 얻은 것 같다”는 견해를 밝혔다.

/연합뉴스

개그맨 유세운-문세운  
봉준호-사론 최 패러디 화제



가장 개인적으로 좋은 것같이 가장 창란졌인 것이다.

봉준호 감독과 통역 사론 최가 아카데미를 비롯한 각종 국제영화제에서 보인 모습을 코미디언 문세운과 유세운이 패러디한 영상이 화제에 올랐다.

유세운은 지난 18일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Parodysite’(패러디사이트)라는 글과 함께 봉 감독과 사론 최를 패러디한 사진과 영상을 올렸다.

영상에는 봉 감독 의상부터 헤어스타일, 말투를 그대로 재연한 문세운과 긴 머리에 다소곳한 모습으로 통역하는 사론 최를 흉내 낸 유세운 모습이 담겨있어 웃음을 자아낸다.

특히 두 사람은 각종 시상식에서 봉 감독이 밝힌 수상 소감을 패러디해 눈길을 끌었다.

문세운은 “이제 내려가서 아직 반쯤 남아있는 비건 버거를 마저 먹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혹시 근처에 맥도날드 있나요?”라고 말했고, 유세운은 이 말을 일부는 정확하게 일부는 ‘이상한’ 영어로 코믹하게 통역했다.

아울러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감독상 수상 당시 봉 감독이 마틴 스코세이지를 인용하며 “가장 개인적인 것이 가장 창의적”이라고 한 말을 “가장 개인적으로 좋은 것같이 가장 창란졌이다”라고 패러디해 폭소를 자아냈다.

봉 감독은 지난달 13일 열린 ‘크리틱스 초이스 어워즈’에서 최우수 외국어영화상을 받은 뒤 “멋진 감독님들과 같이 후보에 올라 더 기쁘다. 감사하고 이제 내려가서 반쯤 남은 비건 버거를 먹겠다”고 밝힌 바 있다.

/연합뉴스

## TV프로그램 20일 ※이 프로그램은 방송사 사정에 따라 바뀔 수 있습니다.

	KBS1	KBS2	MBC	KBC/SBS
[6]	00 KBS 뉴스광장	00 걸어서 세계속으로 50 생방송 아침이 좋다	00 MBC 뉴스투데이 1~2부	00 모닝와이드 1~2부
[7]	50 인간극장		20 광주 MBC 뉴스투데이 50 나쁜 사랑	15 KBC 모닝와이드 35 모닝와이드 3부
[8]	25 아침마당	00 KBS 아침 뉴스타임	30 생방송 오늘 아침	35 맛 좀 보실래요
[9]	30 KBS 뉴스	00 꽃길만 걸어요(재) 40 무한리플 샐러드	30 930 MBC 뉴스 55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 <민주통합의원외모임>	10 좋은아침
[10]	00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40 지구촌 뉴스	45 기본 좋은 날	00 국회교섭단체 대표연설 -민주통합의원외모임 50 열린TV 시청자 세상
[11]	00 동행(재) 55 UHD 숨터(재)	00 포레스트(재)	45 출발! 비디오 여행 다이제스트	50 SBS 12 뉴스
[12]	00 KBS 뉴스 12	10 우아한 모녀(재)	00 12 MBC 뉴스 20 아이돌 타임 프리파라 50 뽀빠뽀 모모야 놀자 스페셜	25 민방 네트워크 뉴스 50 특목 보험설계
[1]	00 사랑의 가족 50 KBS 재난방송센터(재)	50 무엇이든 물어보세요(재)	20 푸러기 식사교실(재) 50 2시 뉴스 외전	55 닥터 365 00 뉴스브리핑
[2]	00 KBS 뉴스 10 테테루 테디베어 마을의 비밀 25 출동! 애니멀 레스큐 40 비밀의 바람숲			
[3]	10 이웃집 찰스(재)	00 KBS 뉴스타임 10 자동공부책상 위키 2 30 TV 유치원	20 나쁜 사랑(재)	
[4]	00 사사건건	00 누가 누가 잘하나 스페셜	00 기본 좋은 날	00 테마스페셜 55 닥터 365
[5]	00 KBS 뉴스 5 10 총선 정당정책연설 <더불어민주당> 30 전국을 달린다 40 남도 지도그래피	00 시노스톤 프라이밍 30 주간연예수첩	00 5 MBC 뉴스 25 시리즈M 스페셜	00 SBS 8 뉴스 45 KBC 저녁뉴스
[6]	00 6시 내고향	00 KBS 경제타임 30 2TV 생생정보	25 오매 전라도	00 건강한 토크쇼 내 몸을 부탁해
[7]	00 뉴스7 광주전남 40 한국인의 밥상	50 우아한 모녀	30 MBC 뉴스데스크	00 닥터 365 05 최강 1교시(재)
[8]	30 꽃길만 걸어요	30 글로벌24 55 제보자들	55 더 게임:0시를 향하여	00 SBS 8 뉴스 35 KBC 8 뉴스 55 순간포착 세상에 이런일이
[9]	00 KBS 뉴스9			
[10]	00 다큐 인사이트 55 더 라이브	00 포레스트	05 포구만리 스페셜	00 맛남의 광장
[11]	35 UHD 숨터 40 KBS 네트워크 특선 올댓뮤직	10 해피투게더 1~2부	05 100분 토론	50 접속! 무비월드 스페셜
[12]	30 KBS 뉴스 40 인간극장 스페셜	40 스포츠 하이라이트	30 나는 트로트 가수다	45 나이트리인

## EBS1

07:00 출동! 슈퍼핑크	13:00 다큐 시선	18:00 생방송 특!톡! 보니 하니
07:30 뽀로로와 노래해요	13:55 특집다큐멘터리-가족의 탄생	19:00 미라클러스: 레이디비그와 블랙렛
08:00 땀방울 유치원	14:45 다큐동화 달팽이(재)	19:30 생방송 판다다
08:30 미니특강대 슈퍼공룡파워	14:55 용감한 소방차 레이(재)	20:00 4남매 쇼
08:45 방구대장 뽀빠이	15:10 출동! 슈퍼핑크(재)	20:30 자이언트 팽TV
09:00 고고다이노 공룡탐험대	15:25 트리푸름	20:50 세계테마기행 1~2부
09:30 다큐동화 달팽이	15:55 미니특강대 슈퍼공룡파워(재)	<인도네시아 휴먼 로드 -화산에 꽃핀 인생>
09:40 야옹명명 귀여워2	16:10 예술아 놀자	21:30 한국기행
10:00 지식의 기쁨	16:25 페퍼 피그(재)	<뜨끈뜨끈, 전국 기행 4부 그 산골, 겨울의 맛>
10:30 한국기행(재)	16:40 땀방울 친구들-장난감나라의 비밀	21:50 다큐 시선
10:50 최고의 요리비결	17:00 EBS 뉴스	22:45 심어즈:시대와 함께 울고 웃다
11:20 세계테마기행(재)	17:20 해오와 해오	23:35 발견의 기쁨 동네책방
12:00 EBS 정오뉴스	17:30 고고다이노 공룡탐험대(재)	
12:10 오늘 뭐하고 놀지?	17:45 올리 앤 문제(재)	

## 知天命이 보는 오늘의 운세 2월 20일(음 1월 27일 쐬巳)

<p>36년생 대하기 부담스럽다면 확실히 피해버리는 것이 낫다. 48년생 전혀 인식하지 못하였던 오류가 보인다. 60년생 행운이 깃들기 시작하는 형국이다. 72년생 모름지기 정성을 다한다면 이루어지게 되어 있느니라. 84년생 예상해 왔던 구도와 동떨어지게 된다. 96년생 기존과 신규 간에 균형과 조화가 절실하다. 행운의 숫자 : 46, 98</p>	<p>42년생 정면 돌파가 최상의 방책이니 부담을 무릅쓰고라도 임하라. 54년생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면 자제하라. 66년생 미리 걱정 할 필요까지는 없으니 노파심은 버려도 된다. 78년생 팔이 들어 굶지 내 굶지는 않는 법이다. 90년생 주저하지 말고 확실하게 붙잡아 두는 것이 유익할 것이다. 02년생 임의적이어도 된다. 행운의 숫자 : 37, 97</p>
<p>37년생 진행하는 속도는 더뎠지만 정면 맞히는 바는 이루어질 것이니라. 49년생 실제로 나타나는 현상은 다르다. 61년생 구태의연함에서 벗어나 창의적 독창성을 발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73년생 적극적으로 밀고 나가야 할 일이다. 85년생 관련시키는 요인이 발생하는 판국이다. 97년생 혼란스러울 수도 있으니 간소화 하자. 행운의 숫자 : 24, 54</p>	<p>31년생 경제적 이익을 보거나 뜻 깊은 영예로움이 있을 수다. 43년생 발전을 위한 아픔은 감내 해야만 한다. 55년생 변화의 조짐이 보이니 확실히 대비하라. 67년생 절충의 잔스니 절대 놓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 79년생 펼쳐 버리지 못한다면 시간만 낭비할 뿐이다. 91년생 생각에만 머무르면 아무런 쓸모가 없느니라. 행운의 숫자 : 27, 95</p>
<p>38년생 괴롭다고만 하지 말고 인내를 통한 단련의 기회로 삼자. 50년생 기조에 타격을 주는 요인이 작용하리라. 62년생 세심하게 분석해 보는 것이 유익하다. 74년생 의도와 다르게 비춰질 수 있음을 감안해야 한다. 86년생 광범위하게 유익한 환경에 놓일 것이다. 98년생 찬스는 자신만을 기다려 주지 않을 것이니 꼭 잡아라. 행운의 숫자 : 80, 55</p>	<p>32년생 요령이 있어야만 능률적이다. 44년생 결과보다 진행 과정에 비중을 두는 것이 합리이다. 56년생 대손은 없을 것이니라. 68년생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 80년생 근본적인 타개책의 마련으로 부심하리라. 92년생 순리대로만 처리한다면 무난하다. 행운의 숫자 : 39, 91</p>
<p>39년생 처음 마음먹었던 목표에 조금씩 접근하는 양태이니라. 51년생 자연스럽게 넘어가야 할 문제이다. 63년생 작은 흠결이 보이지만 염려할 바는 아니다. 75년생 경험자의 조언을 참고하는 것이 백 번 나은 것이다. 87년생 먼 곳으로부터 오는 희소식을 접하리라. 99년생 목적해 왔던 바와 조우하게 되는 뜻 깊은 날이 될 것이라. 행운의 숫자 : 42, 87</p>	<p>33년생 투명하게 처리해야 한다. 45년생 형세에 맞게 적당히 조절해야 할 때가 되었다. 57년생 지속적 노력에 경주된다면 풍성한 결실이 있을 것이다. 69년생 앞면에서도 방치한다는 것은 손실을 자초함을 알아야 한다. 81년생 상호적인 협조가 이루어지리라. 93년생 객관적인 자제만이 활로를 열어 주게 된다. 행운의 숫자 : 03, 73</p>
<p>40년생 살피고 있는 것보다는 실행이 더 생산적이다. 52년생 재정비에 확실히 신경을 써야 한다. 64년생 애매한 국면에 놓여 있으면 굳이 실행할 필요 없다. 76년생 조언을 참고하는 것이 상책이다. 88년생 새로운 관점에서 바라본다면 차원이 달라질 것이니라. 00년생 인내의 한계에 도달 할 수 있다. 행운의 숫자 : 07, 63</p>	<p>34년생 구도가 완전히 달라질 가능성이 높다. 46년생 면모에 따라서 비중을 달리 할 필요가 있다. 58년생 목적에 부합하는 속성들이 나타나고 있느니라. 70년생 상태를 정비하고 재충전해야 할 시기이다. 82년생 재평가할 필요성이 보인다. 94년생 절대적이지 않다는 사실을 명확하게 인지할 필요성이 있느니라. 행운의 숫자 : 36, 50</p>
<p>41년생 충분한 논의가 선행되어야 한다. 53년생 확실히 지속하고 있는 것이 능률적이다. 65년생 집착할수록 손해이니 빨리 포기하는 것이 나은 것이다. 77년생 평소 애써왔던 것이 힘이 된다. 89년생 근본적인 원인을 따져 보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01년생 실제로 체험해 보는 것이 이상적이다. 행운의 숫자 : 10, 85</p>	<p>35년생 판단은 자신만을 가늠려 주지 않느니라. 47년생 내부에서 찾는 것이 옳다. 59년생 매듭만 잘 풀면 단련된다. 71년생 관계를 개선시킬 필요가 있다. 83년생 적기에 실행해야만 효과를 볼 수 있느니라. 95년생 관리는 평상시에 하는 것이 자연스럽다. 행운의 숫자 : 17, 79</p>